



원로가 없는 사회

장을 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원로가 푸대접받는 사회

2000년 10월 11일 필자는 한 신문의 칼럼을 읽고 참담한 심경을 기쁠 길이 없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꼴찌라는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다. 부끄럽고 참담하기조차하다. 이는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아·태지역 사무소가 올해 초(2001년) 역내 17개 국가의 만 9세~17세 청소년 1만여 명(한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비율도 꼴찌를 기록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예의를 숭상하는 면에서 세계 으뜸으로 꼽혀 오던 나라였는데,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뽑내 오던 나라였는데, 어찌해서 어른이나 스승을 공경하는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꼴찌로 쳐지고 말았다는 것인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예의를 숭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랑캐로 몰아쳤던 나라들보다 어른이나 스승을 공경하지 않게 되었다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실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공경받지 못하고 푸대접

을 받고 있으리라는 것쯤은 예상했던 일일는지 모른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산상속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가 하면, 노쇠한 어머니를 길가에 버리는 패륜 등은 심심찮게 보고 들어온 터이다. ‘동방예의지국’이 오랑캐들보다 더 못한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사 ‘동방예의지국’로 뽑낼 수는 없을망정 오랑캐로 멸시해 왔던 국가들보다도 인간의 도리를 더 저버리고 예의를 숭상하지 않게 되었다니, 실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우리도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겪다 보니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방예의지국’이 오랑캐들보다 더욱 저질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늙으면 퇴물로 취급되는 사회

대체로 서양에서는 젊은 지도자들이 쉽게 출현할 수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젊은 지도자들이 출현하기 어려웠다고들 한다. 옛부터 서양에서는 30대의 젊은 예수가 등장해서 정신계를 지배해 왔으니 젊은 지도자들의 출현이 손쉬웠지만, 동양에서는

“

우리 사회는 나이든 늙은이는 많어도
 존경받는 원로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그릇된 태도
 변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 보다 더 큰 책임은 필자가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늙은이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

”

머리가 허연 공자가 정신계를 지배해 왔으니 나이가 들어서야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동양에서는 일정한 나이에 달해야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사회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가 불려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후 40대의 박정희 장군이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는가 하면 30대의 육사 8기생들이 나라를 주름잡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젊은 군인들은 나이든 기성 정치인들을 선별·활용해서 스스로를 보완하는 슬기를 발휘하기보다는 그들을 낚고 썩은 퇴물로 규정해서 퇴출시키기에 급급했다. 여기서부터 나이든 늙은이의 수난이 시작되었고, “늙으면 죽어야 해”라는 자조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부집권이 장기화되면서 그 지도자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 늙은이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경향이 줄어들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1980년 5·17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늙은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천시풍조는 또다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신군부 집권세력은 스스로의 젊음을 과시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시대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석상

에서 한국 측 여당 의원의 발언은 실로 망신스러운 내용이었다.

“한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40대인데 일본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60대라서 세대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도 우리처럼 40대였으면 좋으련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측 의원들은 의아해 하면서 괴이쩍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행정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기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젊은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의 속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지껄었으니 창피가 막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젊어야 활기차고 발랄하지 나이 들거나 늙으면 퇴물로 취급받는 일은 군사정치 문화의 소산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늙은이의 그릇된 처신

우리 사회는 나이든 늙은이는 많어도 존경받는 원로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늙은이들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도, 존경받는 원로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그릇된 태도 변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분명 보다 더 큰 책임은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늙은이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 모든 잘못의 근원적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자각을 전제로 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손쉽게 찾아질 수 있지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책임전가만으로 급급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아지기 어려운 법이다.

실상 우리 사회에서 늙은이들이 어린이나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까닭도 잘못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는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4년 여름, 필자는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솔직히 표현하면 늙은이들의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던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자칭 교육계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요즘 젊은 놈들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질타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젊은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교육계 늙은이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저러니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그 자리에서 토설할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주최했던 사람이 '장 총장도 밥값은 하고 가라'면서 마이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밥값 무는 셈치고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계 원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 같이 요즘 젊은 놈들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는 말씀들이신데, 나도 요즘 젊은 놈들 버르장머리 있고 싸가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오. 하지만 요즘 젊은 놈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놈들입니다. 모두가 여기 계시는 교육계 원로들의 가르침을 받고 원로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자라왔을 터인데,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반성하는 기미는 없이, 젊은이들에게만 책임전가하고 있으니, 이것이 교육계 원로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계 원로들의 자세가 이러하니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남에게 존경받으려면 우리들이 올바른 처신, 스스로의 잘못부터 먼저 반성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44**

장을병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교수 및 성균관대 총장, 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논저로는 『한국정치론』,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제3세계 민주화와 한국의 선택』 외 다수가 있다.